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I 감 사 개 요

추진목적

- 서울특별시 교통행정 및 시설운영 전반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시정,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제53조(운영 규정)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기 간 : 2022.11. 2.(수) ~ 11.15.(화) [14일간]

※ 제315회 정례회: 2022.11.1.(화)~12.22.(목) [52일간]

대 상 :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

- 도시교통실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감사위원회 편성 : 13명

직 위	소속정당	성 명	사무보조 공무원명
위원장	국민의힘	박 중 화	수석전문위원 장 훈 의사지원팀장 민향식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 병 윤	전문위원 박준영 주무관 배효인
	더불어민주당	김 성 준	입법조사관 온순현 입법조사관 이성엽
위원	국민의힘	경 기 문 김 종 길 김 혜 지 소 영 철 윤 기 섭 이 경 숙 이 승 복	입법조사관 안진주 입법조사관 김유라 주무관 두미정 주무관 박은영 주무관 이동남 입법지원관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성 흠 제 이 상 훈 임 규 호	입법지원관 김주완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마이크콘솔요원 (1명)

□ 감사일정

일 시 (교통위원회 회의실)	대 상 기 관	비 고 (증인출석 14)
11. 2.(수)10:00	도 시 교 통 실	○ 증인 출석(12)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주)더스윙 넥스트레인(주)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서울씨엔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주식회사 한국도심공항주식회사 주식회사 K-리무진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11. 3.(목)10:00		
11. 4.(금)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증인 출석(1) 동북선도시철도
11. 7.(월)10:00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자회사 5개 포함 (서울메트로환경(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서해철도(주))	
11. 8.(화)10:00		
11.10.(목)10:00	서울시설공단	
11.14.(월)10:00	도 시 교 통 실	○ 증인 출석(1) (주)올룰로
11.15.(화)	감사결과 정리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시책질의, 감사자료 및 문서확인 등

□ 중점 감사사항 (수감기관 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1. 11 ~ '22. 10 연도별 구분 작성)
- '21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1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집행 현황
- '21년도 ~ '22년도 국정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1년도 ~ '22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22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2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조례·규칙·사규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22년도 행정소송 계류 및 패소사건의 판결문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 현황
- '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별도 수합 요구)

II

감 사 결 과

□ 총 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자료요구)	비고
계	411	201	66	144	
도 시 교 통 실	161	72	33	5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 시 철 도 국)	39	17	13	9	
서울교통공사	137	74	19	44	
서울시설공단	74	38	1	35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 총 201건

【도시교통실】 시정 · 처리 요구 72건

1. PM 업체가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보조금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바람
2. 피감기관은 의원들의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하길 바람(지적)
3. 도시교통실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위촉 비율이 낮아 시정을 요구함
4. 스마트쉘터 등 안내판 오류 정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5. 사모펀드의 시내버스회사 매입 후 고배당지급,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상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운영에 대한 규제 및 대응방안 마련
6.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잉여예비차의 투입
7. 심야버스(올빼미버스) 배차시간 단축안 마련
8. 심야버스 노선연장 및 노선신설을 적극 추진
9. 간선도로와 병행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험성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10.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왕십리 방향 우회차선 신설하여 상습교통 정체를 완화할 것
11. 서울시내 일부구간 제한속도 50km를 다시 70km로 변경한 것은 즉흥적인 계획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됨, 따라서 교통계획 수립의 면밀한 검토 요구
12. 어린이보호구역내 간선도로(골목이 아님) 30km 속도제한을 야간에는 완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
13. 위례신사선 경전철 노선이 올림픽훼미리아파트 1/2단지 사이로 확정되면서 소음/진동 우려로 주민 성명서를 제출했으나 안전성 문제(노후아파트, 지반 연약), 재산권 침해(사유지 침범) 등 해당아파트 주민 배제 등 주민 의견 청취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음
14. 광화문 월대교통정체에 대한 도시교통실의 대책

15. 교통평가시 시민의견 반영방안을 강구

16. 코로나로 인한 공항버스 지원방안 마련

17. 시내버스 평가에 있어 성과금배분 뿐만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방안

18. 신림선 차량 누수 관련

- 신림선 열차내 누수가 발생(시민제보) 했음에도 이병윤 위원에게 제출한 신림선 누수현황 자료에 차량내 누수 0건으로 제출함. 허위보고 재확인할 것
-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운영주체 등이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 서울시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며, 하자보수 비용도 제작업체의 부담이 필요

19. 신안산선 정거장 및 출입구 변경 관련

-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2020년)으로 추진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2013)와 달리 정거장 및 출입구가 변경됐음
- 국토부는 기 실시설계가 완료된 정거장은 '정거장의 위치를 준용하여 전부 설치할 것'을 명시(2018.1.)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수정의견을 일주일 만에 공표하는 등 서울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 설계되었음
- 비용절감으로 민간업체는 이득이나 시민 불편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서울시민에게 불이익한 사업계획 변경은 애초 사업 취지를 몰각한 사업으로 평가
- 출입구 위치수정 및 증설을 위해 국비 및 시비의 추가투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는 국토부를 설득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에 노력하길 바라며, 넥스트레인도 이에 협조하기 바람

20.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 인증 중단 관련

- PM 이용은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 가능하나, 대부분 업체에서 운전면허 인증절차가 전무함
- 따라서 만16세 미만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임

-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업체들은 면허인증 절차가 중단해 가입자를 늘리는데만 혈안이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시민의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음
- 업체가 면허 인증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유도가 필요하며, 필요시 견인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검토 바람
- 특정앱은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필요

21. 공유 스쿠터 사업 관련

- PM업체가 공유킵보드 뿐만 아니라, '스쿠터' 대여사업까지 확대함
- 공유킵보드 같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보행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해 보고 바람

22. 자율주행 시범사업 관련

- 청계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데, 청계천은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자율주행이 성공하기 어려운 입지임
- 노면정비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보행자 등의 간섭으로 자율주행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
- 원활한 자율주행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 중구·종로구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저조했음. 위반 행위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단속이 약해졌다고 해석도 가능. 악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함. 중구·종로구에 협조 요청 필요
- 청계천 자율주행이 안착될 때까지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 필요

23. 티머니 '티머니GO' 플랫폼 관련

- 티머니는 '티머니GO'를 통해 따릉이, 썩썩, 고속·시외버스 예매, 택시 호출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티머니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데이터 정도밖에 공개되지 않아 공공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서울시가

점검해야 함

- 티머니 역시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사업자이므로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경계하고, 티머니 데이터 개방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미래첨단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바람

24.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 차파트너스 사모펀드 버스회사 인수현황은 982대, 2,212억원 재정지원금을 받음
-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버스회사는 과다 배당, 유상감자 등이 실행되어 재무구조가 부실화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버스회사의 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차파트너스가 버스산업에 뛰어난 긍정적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 효율화 노력도 미비
- 또한 준공영제 구조상 비용 절감의 자구노력은 향후 표준운송원가의 감액으로 이어지는데 차파트너스가 매년 이를 성실히 이행할지도 의문
- 차파트너스도 주장하는 취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버스운송조합과 버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함께하기 바람

25. 택시 정책 관련

- 택시요금 인상 시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요금 인상은 반드시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
- 국토부와 서울시간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의문, 각각의 대책이 중복되어, 되려 시민에게 부담만 가중, 결국 요금 인상 권한을 행사한 서울시에 책임으로 귀결될 것
- 특히 서울시의 대책에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공급증대 효과가 없어 심야 승차난은 계속되어 시민 불만 심화
- 공급확대를 위해 대형택시, 고급택시 면허 전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단계적 전환이 바람직하나, 국토부가 서울시 의견과 다르게 전면 완화를

천명한 만큼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택시 공급 증대를 위해 면허 전환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만 공급과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형택시, 고급택시 총량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26. 심야버스 확충 관련

- 심야택시 승차난의 대책으로 추진된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가 더더 심야 승차난 개선에 효과를 보이지 못함
- 버스회사 입장은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결정시 즉각 운행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는 심야승차난에도 심야버스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뒤늦었지만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심야버스 운전기사를 신속히 확보해 심야버스 노선을 속히 확대하기 바람

27. 8호선 연장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 남양주 별내신도시 연장 개통 시 배차간격 단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로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종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서울시는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시계발 열차 운영이나 추가 증차로 배차간격을 짧게 해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구간 개통 전 적극적으로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28. 5호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 도시철도 수송실적’에 따르면 가장 혼잡한 지하철 구간 중 2곳이 강동구에 해당 됨
- 해당 구간은 5호선 길동▶강동(132%), 8호선 강동구청▶목촌도성(134%)으로, 특히 길동▶강동 구간의 2022년 상반기 혼잡도는 141%로 예년보다 증가했음
- 서울시는 전동차 1량의 혼잡도 100% 기준을 160명이 탑승한 상태로 상정하는데, 이는 54좌석이 꽉 차고 통로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승객이 모두 106명일 때임.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승객은 240명이 되고, 몸과 얼굴이 밀착돼 부딪힐 정도가 됨
- 특히 하남에서 이미 승객들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강동 주민들은 “아침마다 압사 직전이다”, “공중에 붕 떠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데 도시교통실장은 “5호선 혼잡도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은 서울시가 그동안 무시했던 ‘방증’임
- 예산을 문제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태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5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에 매진해야 할 것임

29. 심야버스 확대 시 예비차 활용 관련

- 심야버스 확대 시 기존 노선 혼잡도 악화 등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존 노선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예비차 활용 방안 검토 요구
- 심야버스 운영을 위해 정상운행 버스를 변경 운행, 예비차를 변경운행 했을 때 발생하는 운송비용에 대해 비교 후 보고 바람

30. 도시교통실 직원 외부강의 관련

- 임기제공무원은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 집행부에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 횟수 제한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할 것
- 서울시 '대표'로 서울시 '노하우'를 알리는 목적으로 출장처리를 했다면, 강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강의료를 받았다면 서울시에 귀속 되는 것이 맞지 않나?

31. 자전거등록제 소극행정 관련

- 자전거등록제 강동·양천구 2곳만 시행 중으로, 방치자전거 대책 중 하나인 자전거등록제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자전거등록제와 관련 자치구에 일괄 모바일 등록방식 방안을 강구할 것
- 강동구 암사역 방치자전거 문제 해결 바람
- 강동구 암사동 고덕로1길 횡단보도, 암사동 아리수로 횡단보도 개선 바람

32. UAM 실증사업 안전문제 관련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한강 일대 운항 사실상 힘들지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강행해 예산 낭비
- 연구용역 중간보고자료에 따르면 UAM 도입 시 기존 계획한 한강 관통 대신 도시 주거지 상부 통과해야 해 과거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충돌사고' 우려
- 설익은 UAM 도입 대신 도시철도 차량 증편으로 혼잡도 낮추는 게 시급

33. 공유킵보드 주차장 관련

- 공유킵보드 주차장 서울시 지원 특혜 소지 우려
- 공유킵보드 주차장 설치 비용을 한국PM협회·킵보드업체와 공동부담 방안도 검토해보길 바람

34. 마을버스 지원 사업의 제한 근거는 부시장의 방침으로서 조례에 근거할 것

35. 신안산선 대심도 공법으로 아낀 예산을 반영하여, 만리재역을 신설할 것

36. 대흥역 3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신설 건의

37. 전기버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답합에 대한 조사요청

38.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및 이행여부
39. 지하철 공사의 과도한 시방서 계획에 대한 검토
40.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구간 개선 필요
 -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예외 규정을 담아 4개소 이내 범위를 해제한 점에 대해 서울시의 결단 필요 요구
41. 출퇴근 및·심야버스 혼잡도 심각, 출퇴근 단축버스 줄이는 것 지적, 오히려 늘려야 함
42. 장애인 콜택시 플랫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장애인 이용객들의 편의개선 필요 지적
43. 따릉이 광고 유찰 비용 문제로 보여짐, 광고 업계 자문을 받아서 적정가격 책정해야함 지적
44. 재생자전거 가격, 신제품보다 비싼 문제, 서울시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함 지적
45. 자전거도로 수요에 따라 불필요한 곳은 삭선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 지적
46. (주)메트로9호선 위험준비금 관련
 - (주)서울시메트로9호선 대상 '위험준비금' 용도외 사용 지적
 - 향후 위험준비금의 사용과 적립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
47. 개인형이동장치(PM) 면허 인증 관련, 법령상 PM 16세 미만 사용 불가인데 초등학생이 사용한 사례 언론보도 등에 보도되고 있음. 면허 등록 시스템의 한계 아닌가? 면허등록시스템 개선 필요함
48.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모 착용 관련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PM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되었으나, 준수율 저조함
 - 전국 평균 19.2% 보다 6.6% 낮아
 - 경찰 단속도 유명무실한 상황. 공유PM 사고 증가에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할 것

49. 모바일앱·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 도시교통실 소관 웹사이트·모바일앱 품질인증 추진
- 최근 5년간 실태조사 D등급 17회, C등급 10회, 개선을 저조
- 업데이트·적시성·이용자 불편사항 답변 빠른 개선 바람
- 예산 확보 통해 기준에 미달한 앱 보완할 것

50. 직원 외부강의 관련

- 외부강의 180건 중 42건 출장 미처리, 연가 미사용 29건, 연가 사용여부 '조회불가' 5건임
- 출장비 이중수령 건 증빙 및 조치 바람

51. 공항 리무진버스 관련, 공항리무진버스 이용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반 리무진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내 시정조치할 것. 연내 일반리무진 노선 운영에 나설 민간사업자가 없을 시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2. 심야버스 확대 관련

- 심야버스 수요대응 운영을 위해 심야버스 노선이라도 차량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방법 강구
- 심야버스 장대노선 14개 중 9개 해당 되는데 노선단축을 통해 노동강도 줄여야
- 앞으로 서울시가 심야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인데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53. GTX-C 노선 공익감사 관련

- 공익감사결과 GTX-C 도봉구간이 돌연 지상화가 된 데에는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음
- 행정력, 재정적 낭비와 개통에 큰 차질을 빚은 만큼 서울시가 각종 법적 책임 물어야 함
-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기간에 맞춰 모든 화력을 다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우선사업시행사에 서울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킬 것

54.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관련

- 1~8호선 종합관제센터 사업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 종합관제센터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1~9호선 통합 추진 필요성 지적

55.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 관련

- 당연직이사의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참석률 저조
- 공사채 발행,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2021~2025)은 서면결의 사유도 없이 서면 이사회 처리
- 대면회의에 참석해 공사 운용과정을 잘 살펴보고 철저히 감독해주길 바람

56. 우이신설연장선 예산 관련

- 우이신설 연장선 관련 실시설계비 예산 왜 없는지? 市의 의지표명 차원에 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 우이신설 연장선 추진상황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과 공유바람

57. PM 주차장 표식에 대한 지적(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반영 안 함.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해 시민 안전의식과 교통 문화를 제고할 방안 강구

58. 8호선 연장(별내선) 확장된 부분은 경기도에서 문제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게 책임 떠맡기 아닌가? 문제가 예상된다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 마련할 것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운용계획과 추후 방안 수립

59. 정류소 환경보다 버스가 빨리 오게 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하지 않나? 정류소는 편안한데 버스가 안 온다. 전시행정 아닌가. 스마트쉼터의 안락함보다 버스 배차 간격 축소가 중요. 버스 증차 및 노선조정에 대해 업체와 협의 아닌 '통보' 공문 발송. 출·퇴근시간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도 완화 필요

60. 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돌려막기식 답변 태도 지적

61. 주정차위반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저해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것

62. 교통공사 적자 심각. 운영을 늘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 필요. 경전철 등 재정 투입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수요조사의 오류, 책임소재와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
63. 교통불편 신고 앱에 신고했더니 답변이 엉뚱함. 피드백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신고채널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챗봇을 비롯 민원 콘트롤타워 필요함. 난립한 불편신고의 일원화 필요(신고 후 엉뚱한 답변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64. 장애인 시위 등 안전과 관련된 공권력 집행을 엄정히 할 것
65. 심야시간 지하철 운행 연장으로 인한 정비시간 축소 및 근무자의 피로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문제, 재정 적자 등에 대한 방안
66. 무인운행 신림역, 셋강역 3개역 무정차 통과에 따른 현장조사 요구
67. 자전거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및 입간판 단속 강화
68. 교통시설물의 관리 점검 철저 (의자열선 등)
69. 도심항공교통(UAM) 한강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 운행 시 안전사고 문제가 있는데 실제 가능한 것인지 확인 요구
70. 신도림역 등 혼잡도 심한역 개선
71. 교통공사 의견광고 폐지 관련, 의견광고 비율 0.08%에 불과함에도 폐지하려는 이유와 의견광고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재검토 필요
72. 대중교통이 주민들과 유리되어 있음. 주민이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노선 신설하기 어렵고 지역 격차도 심함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시정 · 처리 요구 17건

1. 동북선 공사와 관련, 언론보도 지적사안인 상하수관 파열, 지반흔들림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민원, 진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 및 공사현장관리 철저
2. 동북선 공사와 관련, 지반흔들림으로 인한 주변 건물의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3. 동북선 제103정거장 출입구를 유동인구가 많은 경동시장, 약령시장 방향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남측방향으로 설치하여 주민 민원을 초래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지적
4. 도시철도 사업의 대상 지역의 보상과 관련하여 사전협상 및 협의 전문성 강화
5. 8호선 연장(별내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로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종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개통 전 암사역사공원역 출발 운행 및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건설 주체인

도기본에서 기술적 검토 후 보고 바람

6. 8호선 연장(별내선) 관련

- 별내선 차량기지 증설 추가비용 분담 주체, 국비지원의 형평성, 공사주체 등 공사시행에 대해 경기도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 선사고등학교 피해에 대한 해결책 강구
- 별내선 공사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에게 즉시 보고 바람

7. 9호선 4단계 착공 관련

- 9호선 4단계 동절기 굴착행위 중지 원칙인데 연내 착공 가능한지?
- 착공이 어려운 공정구간에 대해 보고 바라며 차질없이 진행 바람.
-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시행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홍보 및 안내해줄 것

8. 9호선 2·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관련

- 70억원 들인 9호선 2·3단계 기계식 자전거주차장 10곳 이용률이 지난해부터 1%에 불과
- 유지보수 및 활성화 시도보단 철거 하는게 현실적, 원점에서 재검토 후 보고 바람
- 향후 시민 니즈에 부합한 정책과 면밀한 검토를 선행한 뒤에 사업을 추진 해야 할 것

9. 동북선 민간투자에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특히 후순위채권이 고금리로 책정 되어 있는 바 이를 시정할 것

10. 동북선 사업의 의사결정에 특정 사모펀드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11.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인근 주민 피해 적절한 보상과 공사 기간 단축이 필요함

- 동북선 상계역 환기구 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 매우 협소해짐, 상계역 출구 상계동에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 환기구 인근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12. 진접선 관련

- 4호선 진접선 연결로 창동주민들이 출퇴근시 혼잡으로 매우 불편을 느끼

므로 평면환승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 진접차량기지 지난해 업무보고와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 시 사업비가 403억원이 증액됐는데 사유 제출할 것
- 진접선 연장 공사 중 2016년 6월 가스 폭발 추정 붕괴 사고로 사상자 14명이 있었고, 2020년 11월 지지대 붕괴로 인한 1명 매몰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차량기지 완공 시까지 사고 예방 당부

13. 동북선 사유지 보상 관련, 동북선 사유지 보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면밀한 추진 당부
14. 공사장 재해 관리 관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 요청
15.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22년 10월 현재 실시 협약 추진현황표를 보면 '20.7 도시교통실 ➡ 도기본으로 업무이관 '22.8 도기본 ➡ 도시교통실로 업무이관 됨. 단일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6. 도심지 발파 관련, 발파방식을 전자뇌관으로 사용하도록 검토 바람
17. 별내선 상하수도 파열에 대한 회사 및 관계자 처벌이 경미함

【서울교통공사】 -시정·처리 요구 74건

1. 업무상 비밀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2. 서울메트로환경 경영환경 무재해 목표는 0건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달성할 수 없다면 목표명을 바꿀 것
3. 답변 시, 정확한 수치를 숙지하여 답변해주길 바람
4. 감사장에서의 피감기관의 태도(지적)
5. 서울교통공사 사장 발언 유의 ('아니' 등 경어 미사용 발언 지적)
6. 공사의 적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
7.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지연증명서 및 미승차확인시 환불 기한(7일)의 연장
8. 1호선 (제기역, 청량리역 등) 노후 역사의 환경 및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
9. 향후 동북선과 환승역이 예정되어 있는 제기역의 경우,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1호선 제기역사도 리모델링할 것
10. 공사 내 청렴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감사 강화
11. 지하철보안관과 경찰대의 합동순찰 강화 필요함(범죄발생다수시간대)
12. 지하철 모든 차량에 CCTV 설치필요
13. 공기정화장치 입찰시 독점체제 지양할 것
14. 심장충격기현황 전수조사 할 것
15. 현장의 자료와 본사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
16.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 등 자회사의 적정인원 및 인력운용에 대한 검토용역 실시
17. 메트로환경, 도시철도그린환경의 복리후생의 확대
18. 유실물센터 직원의 충원
19. 도시철도엔지니어링 매도가능증권등 자산운용에 대한 내부점검
20. 공사 부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1. 공사 차입금 상환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22. 공사 자회사와 모회사의 복리 및 처우 개선
23. 사회적 기업 외에 유실물 무상기증기관의 다변화 검토
24.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급여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
25. 일산선 위수탁 검수 채권 소송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 강구
26. 일산선 위수탁 비용에 따른 변호사 소송비용 및 향후 대책
27.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 서울시가 지금껏 미세먼지 저감에 투입한 예산은 1,336억원, 터널 양방향 집진기, 대용량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추진됨.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법적기준 초과한 역사는 2020년 8곳, 2021년도 7곳인데 반해 2022년도 29곳으로 크게 증가함
 - 미세먼지 법정기준은 365일 중 단 1일, 매시간 평균값으로 측정값을 평가하기에 평균의 함정이 존재함
 - 이용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첨두시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고 터널 양방향 전기집진기 및 대용량공기청정기가 가동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실제 출근시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호선 전체 역사의 1/3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지 못해 이용객들은 외부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음.
 - 즉, 터널 양방향집진기 성능평가 용역에서는 16%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인다고 하지만 평균값에 불과한 결과이며, 실제 첨두시간에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개소당 5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더 적합한 효과적인 기술은 없는지 경제성 평가가 필요함.
28. 전동차 냉·난방 온도 관련
 - 탄소중립 어젠더 대응을 위해 지하철 냉난방에 따른 소비전력 저감 관리

가 필요함

- 열차운행 시 차량 내 온도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그에 연동해 냉난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9. 8호선 연장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8호선 남양주 별내신도시 연장 개통 시 배차간격 단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8호선은 천호, 잠실 등 환승 수요가 많아 이미 혼잡도 130%를 넘겼음. 다수의 인구가 유입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로 연장되는 8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승객이 더해지면 혼잡도는 1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경기도가 주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연장구간만 분석됐고, 기존 본선의 혼잡도 증가 및 기존 본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예측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상 오차도 상당함. 당시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남양주시 인구를 약 64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2022년 9월 남양주시 실인구는 약 74만명으로 10만명의 오차가 있음. 기존 8호선 통행 인구 조사에서도 실제 통행량과 예측 통행량에 10% 내외의 오차가 있음
- 8년 전 수요예측자료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개통 전 증차와 배차 간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호선, 7호선 등 경기로 연장되어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야기된 선례가 있는데 8호선도 마찬가지로 혼잡도 문제가 예견됨. 종점이었던 암사역 인근 주민들은 열차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임
- 서울시는 암사역사공원역에서 시계발 열차 운영이나 추가 증차로 배차간격을 짧게 해 혼잡도를 완화해야 하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연장구간 개통 전 적극적으로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30. 5호선 혼잡도 완화 대책 관련

- 서울시가 공개한 ‘2021년 도시철도 수송실적’에 따르면 가장 혼잡한 지하

철 구간 중 2곳이 강동구에 해당됐음

- 해당 구간은 5호선 길동▶강동(132%), 8호선 강동구청 ▶목촌토성(134%)으로, 특히 길동▶강동 구간의 2022년 상반기 혼잡도는 141%로 예년보다 증가했음
- 서울시는 전동차 1량의 혼잡도 100% 기준을 160명이 탑승한 상태로 상정하는데, 이는 54좌석이 꽉 차고 통로와 출입문 쪽에 서 있는 승객이 모두 106명일 때임. 혼잡도가 150%로 증가하면 승객은 240명이 되고, 몸과 얼굴이 밀착돼 부딪힐 정도가 됨
- 이태원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5호선 증차와 배차간격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1. 지하철 시위 관련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는 교통방해 및 철도시설파손시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불법행위로 규정함
- 4호선의 경우 130분 이상 지연된 바 있고, 시민을 볼모로 각종 사회적 손실 야기함
- 공사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 바람

32. 지하철 승강설비 고장 관련

- 최근 5년간 1~8호선 승강편의시설 고장 2,534건 발생, 에스컬레이터 1,795건(71%) 차지함
- 7일 이상 고장 방치된 곳 153건, 신당역·고속터미널역·동묘앞역 특정 역에 장기간 고장 지속 발생
- 5호선 E/L 강화유리 파손 등 감사 진행 필요, 승강설비 부품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필요함

33. 차량기지 보안 관련

- 지난 9월 22일, 26일 두 차례 군자차량기지, 창동차량기지 ‘그래피티’ 범행 잇따라 발생함

- 그래피티 행위 발생 시각도 몰라 방호 체계 미약
- 차량기지 보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됨으로 방지시스템 강화 바람

34.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관련

- 적자 규모 1조 원을 돌파한 공사가 법적 근거 없는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연간 약 70억원 지원 중임
- 특히 임원에게 개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원할 때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요금까지 지원해주다 보니 최신폰을 쓰며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상황임.
- 임원에게 퍼주시기식 지원이 아니라, 상한제 정해서 내부지출 구조조정부터 필요하지 않나?
- 휴대폰 요금지원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35. 직원 겸직관련

- 겸직위반 17건 중 사전신고, 사후신고, 무신고자가 각각 몇 명인지 확인하고, 조치한 사항을 보고 바람
- 정보통신2사업소 소속 황**과장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강의로 2018년~2020년 3년간 약 2억원의 수입을 거뒀는데 21년 8월에야 적발됐고, 공사에서 강등 처리만 했는데 미온적인 징계는 아닌지?
- 월 평균 보수액이 100만 원 이상 겸직자도 여럿 발견됐는데, 겸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 바람

36. 공사통합 후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 강구

37. 안전을 담당하는 인원의 확충

38.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내구연한(20년)도래에 따른 유지보수계획 수립

39. 레일, 고가선 등의 금속 및 비산먼지 등의 관리 방안 및 신기술 도입 계획수립

40. 다중 인원 관리에 대한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시점에서,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등 그동안 추진 사업의 가속을 붙여야 함

41. 지하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사업 효과가 없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 전면 폐지 등의 결단이 필요함

42. 지하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20년 이상 노후 기계의 선제적 수리를 통해

추가 파손을 막고 예산 절감도 해야함

43. 지하철 캐노피 미설치 지역의 논슬립 설치의 재확인 및 전역 확대 설치 필요성 지적

44. 지하철 객실 내, 역사 내 CCTV의 비중 및 사각지대 등 미비점 지적

45.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응급처치 이수율 10% 미만 매우 저조함, 혼잡시간대 즉시 처치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수율을 높여야 함

46. 영등포역 탈선 사고 관련

○ 6일 20시 50분대 영등포역 부근 하행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30분 이상 양방향 운행 중단됐고, 이후 하행선 지연운행이 있었음

○ 탈선 사고 후 연합뉴스는 22시 17분, KBS는 22시 19분 속보가 나왔음. 연합뉴스는 '재난보도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이며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임. 사고 발생 즉시 언론사에 속보 보도가 나가야 함

○ '서울시 안전안내문자'는 21시 42분에야 탈선 사실을 알렸고, '또타지하철앱'은 21시 23분에 탈선 사실을 알리는 첫 문자를 보냈는데 늦장 대처가 아닌지?

○ 게다가 안내된 사고발생시각도 각각 달랐음. '서울시 안전안내문자'에서 20시 53분 경으로, '또타지하철앱'에서는 20시 58분 경, 20시 52분 경으로 안내함

○ 탈선이 4차례나 일어난 것도 아닌데 발생 시각이 4가지나 되는 것은 말이 안 됨. 시민에게 혼선을 주는 일임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고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2차 피해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혼선을 차단해야 함

47. 해킹 문제 관련

○ 서울교통공사 최근 5년간 약 9억8만건의 해킹공격을 받았으며, 하루 평균 약 57만 건에 달함

○ 해킹유형을 구분하면 디도스공격 약9억3만건(95%), 웹공격 4753만건(4.6%), 스캔공격 93만건(0.3%) 등 발생

- 국가별 해킹 공격 시도 현황에 따르면 미주권 82만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은 4만8천 건 등임
- 해킹공격에 발생한 피해는 없지만 해킹시도는 꾸준히 늘고 있어 화이트해커 영입과 방어시스템 고도화에 아낌없는 예산 투입으로 적극적 방어에 나서야 함

48. 연결통로 승강설비 고장 관련

- 도시철도 44개 역에 조성된 역사와 민간건물 간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 164대(52개소) 중 7개소 14대(에스컬레이터 10대, 엘리베이터 4대) 고장상태로 방치
- 조성 시 협약서에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빠뜨린 결과임
-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시간과 법적 비용을 투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남은 5곳도 소송 외에 해결할 수 없게 됨.
-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협약서 조문에 잘 반영하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49. 신조전동차 관련

- 노후 전동차 개량을 위해 2014년 2호선부터 10차레에 걸쳐 약 3조원을 투자하여 노후 전동차를 교체 중이나, 모니터링과 효과분석 없이 지속 신조전동차 도입 중임
- 당장 신조전동차의 장애 및 정비감소, 수리비용 및 잉여인력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경영개선에 반영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함
- 아울러 신조전동차 안전점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 신조전동차가 도입완료 될 2호선 '1인승무제' 시행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 바람.

50. 성범죄 발생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행 이후 17개월간 서울교통공사에 발생한 성범죄와 성희롱 7건 중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건은 2건에 불과함

- 공사는 성폭력 사건 인지조차 못해 11개월 지난 9월 언론보도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였음
- 3건 중 2건은 정직 1개월에 그쳤는데, 앞으로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수시 감찰해야 할 것임

51. 경영목표 설정 관련

- 경영목표는 기업의 미래를 설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공사는 경영목표를 매년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음
-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비롯한 5개 출자기관의 경영목표와 추진과제, 성과목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제각각이라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임
- 공사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전사적 무재해운동'의 산재발생 건수 목표값이 '13건 이하'로 설정했는데, 재해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지 않나?
- 내년 경영목표 산정 시에는 실효성 있는 경영목표화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주길 바람

52. 인재개발원 인력 운용 관련

- 인재개발원 인사발령으로 현장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함
- 전문성이 뛰어난 간부를 인재개발원으로 무작위 발령하는 것이 아닌, 현장인력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 인재개발원 인력 운용 관련 재배치 수립 바람

53. 미세먼지 저감 사업 관련

- 공기청정기 설치 후 공기질 측정결과 공기질이 더 나빠진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 공기청정기 흡입풍속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중인데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양방향집진기 관련 市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로 설치 계획이 진행됐다가 현재 공사와 업체간 계약 체결로 사업을 정상 추진이라고 밝혔음. 성능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정상 추진하는 것이 맞나? 공사의 입장은 어떤가?

-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모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관련해 설치 전/ 설치 후 효과, 성능 등을 상세히 보고 바람
- 54.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사건 발생. 국가보안시설에 주취자가 정문으로 들어 온 사실이 납득이 어려움. 차량기지 보안 허술. 무단침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 강화 필요. 도봉차량기지 경비반장 감봉 3개월 처분반자 징계 재심청구 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책임이 있는 것임. 책임의식 제고 바람
- 5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는 교통방해 및 철도시설 파손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법행위로 규정. 시민을 불모로 각종 사회적 손실 야기, 법적 조치 등 적극 대처 바람
- 56. 3호선 옥수역 대기실 화재, 홍제역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작업자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차가 지나갔는데 사망에 이를 뻔, 사망까지 이를 뻔한 중대 사고임. 메트로환경 기강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할 것
- 57. 감사실 워크숍에 사장·감사 참석했는데, 감사실이 경영진 견제하는 역할임에도 직원 격려 차원 저녁 식사 참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개선 바람
- 58. 감사가 노동조합 간부들 특정사안들에 사규 위반 등을 조사하지 말거나 처벌을 약하게 지시했던 제보 있었는데 해명 바람. 2019년 9월 5일 창동차량기지에 감사팀 방문, 현장에서 근태 적발하는 도중 일부 노조원과 불미스러운 언사가 있었음(음성공개), 감사 소명의식 제고 바람
- 59. 승객폭주시 자체무정차 판단 필요
- 60. 혼잡도 개선대책 필요함(단기, 중장기)
- 61. 3호선 역사리모델링 4~5년내에 처리해주시 바람
- 62. PSD 통신장애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함
- 63. 장애인 고용비율 기준충족 필요함
- 64. 의견광고 폐지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됨. 깊은 검토가 필요함
- 65. 역사 냉방시설 안된 곳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5년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조치 필요

66. PSD고장 관련 통신사 5G중계기 출력문제 전문가 진단 바람
67. E/L 고장이 심함 E/L 850여개. 40여개 업체의 E/L가 들어와 있는 문제 검토 바람
68. E/L와 PSD 매일 고장 근본적인 원인 파악하여 조치필요
69. 공사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함.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 필요
70. 통합관제 구축은 스마트관제를 표방하고 추진할 것
71. 교통공사가 인원을 감축하고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음. 인력, 설비,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72. 자동적 무정차 경보시스템 구축필요
73. 기업어음(CP) 유찰되지 않도록 협의 필요
74. 환경자회사 직원의 적정한 건강진단비용이 책정되어야 할 것

【서울시설공단】 -시정 · 처리 요구 38건

1. 돔구장 지하의 서울책보고 입점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추후 사업 추진시 수요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
2. 돔구장 지하공간을 야구와 연관된 장소를 유치하여 이용객과 수익성을 늘이는 방안 마련
3.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 이용기준 검토를 통해 실질적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
4. 장애인콜택시 적정운영인력 확보 검토
5. 장애인콜택시 과태료 부과액이 60.3% 증가했는데, 범칙금 납부 주체는?
 - 거제시는 GPS 추적하여 법규위반 관리하고 있음. 관련 시스템 도입 검토바람.
 - 과태료 부과로는 부족해보임 추가적 대책이 필요
6. 18년부터 사내복지기금 미출연 되고 있는데? 市입장 및 해결안은?
7. 재해대책 비상근무 횟수, 시간에 비해 총액인건비에 묶여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시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하여 보고바람
8. 에너지저장장치 사업(ESS)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만큼 안정성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
9. 자동차전용도로 노면표시 재귀반사 휘도 관련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노면표시 재귀반사 휘도 점검(4개소) 결과, 비정상(100mcd/m²-Lux 미만) 값 확인
 - 동호→성수대교(1개소)
 - 올림픽대교 하부(1개소)
 -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공단은 노면표시가 하자기간 내 성능이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부실한 관리로 성능이 미흡한 노면표시가 존재하고 있음
 - 공단이 관리하는 전 구간 노면표시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결

과를 보고 바람

- 우천시 교통사고 저감 및 교통안전을 위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10. 고척스카이돔 '책보고' 관련

- 고척스카이돔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서울도서관과 구로구청이 협의해 책보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
- 하지만 고척스카이돔 기준 5km 내에는 '책보고'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이 이미 수십여 곳이 있고, '20~'21년도에 서남권 도서관 확충 사업에 대대적인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었음
- '책보고' 설치계획의 기초가 된 입지 타당성 용역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부실함이 존재함
- 주객이 전도되어 고척돔 활성화를 위한 '책보고' 설치가 아닌 '책보고' 설치를 위한 고척돔 공간 제공으로 전략해 고척돔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포기하게 되었음
- 결국 고척돔과 시너지를 내는 시설유치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공단의 무책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까 우려됨

11. 공단 직원의 근태관리 관련

- 공단 직원에게 배포한 '실수사례집'을 통해 근무 기강 환기를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
- 실제 공단의 '징계 처분의결서'에 나타나듯 '무계 결근'으로 인한 징계가 상당수 존재해 공단의 근태관리의 문제점 및 근무 기강 해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공단 직원의 기본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공단의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함.

12. 장애인콜택시 관련

- 장애인콜택시 업체 선정에 관련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단이 반박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공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책임 존재
- 수능을 앞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콜택시 우선배차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람

-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부주의'에 대한 징계가 잦은데 운전원의 주의 강화 필요, 한편 운전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잘 따져 무리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13.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 일시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제한적 이용(10시~15시)으로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지?
-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이용하지 못하는지? 서울 외 지역병원 이용자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해 보임
- 장애인콜택시 기존 및 신규 이용자의 등록 절차, 구비서류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서류의 진/허위 구분 방법은?
-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람

14. 공단 직원 외부강의·점직 관련

- 외부강의 82건 중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80건(98%), 이중 출장비를 지급 받은 건수는 15건임
-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출장비 중복 수령자 증빙자료 제출할 것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있고, 공단 직원의 근무기강 헤이가 있음. 앞으로 외부강의·점직에 대한 복무 관리 강화가 필요함

15. 직원 징계 관련

-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임직원 81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임
- 공단 징계 이후 직원 소송 등에 따라 징계 변동이 2건 있었는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양정과다' 결정이 났음
- 징계 결정이 소송전으로 가고,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 수준인데 '형평성, 공정, 일관성' 3박자가 맞는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관리방안 제출 바람

16. 따릉이 QR 단말기 부품 및 배터리교체 입찰 등 조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요청

17. 전기차 충전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CCTV가 과연 필요한지? 3~4천만원의 예산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단속 권한이 없는 시설공단이 자치구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아 보임. 사업 점점 지적
18. 동부간선도로 상습포트홀 발생 구간에 대한 버스정류장의 콘크리트 바닥재와 같은 근본적 해결이 필요 지적
19. 어린이대공원의 장애인화장실 설비 적정성 문제, 리모델링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있는 만큼 빠른 시정이 필요함
20. 모바일앱·웹사이트 정보접근성 관련
- 서울시시설공단 웹사이트 정보접근성 준수를 위해 공단이 노력한 점은 칭찬함.
 - 장애인콜택시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C등급 받다가 지난해 D등급(안드로이드), S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D등급(IOS)으로 떨어졌음
 - 장애인콜택시앱은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는 교통서비스 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당부
21. 법 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관련
- 최근 2년간 서울시시설공단 성범죄가 총 4건 발생,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건은 0건임
 - ‘피해자 명시적 반대’는 피해자가 여가부 통보 동의 시 우려되는 2차 피해와 사건 장기화에 따른 심적 고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 공단 4건 중 3건이 근무지 조정에 그쳤음. 성폭행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한 뒤 2차 가해 당한 사례도 발생
 - 재발 방지 위해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당부
22. 청렴 의식 제고 관련
- 매년 자체감사 실시하지 않는 사유 및 매뉴얼 필요.
 - 감사 조치가 매년 발생하는데 개선 의지 부족 및 청렴 의식 필요함
 - 성비위로 해임된 임원 관련, 성과급 지급 문제 있음. 청렴도 하락 우려되며 직원 청렴 교육 당부

- 직원 비위 사건 다수,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필요성 있음

23. 공단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관련

- 공단의 경영목표와 성과지표가 부재 및 불분명함
- 특히 성과지표는 지난해 목표달성치보다 낮은 경우 있음
- 제대로 수립하여 내년 업무보고 시 반영 당부

24. 경영전략본부장 임명 관련

- 경영전략본부장 임명 관련. 내부직원 중 채용한 사유?
 - 채용 면접이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적격자인지?
- 해임된 상임이사의 성과급 보고 현황 위증 문제 지적

25. 어린이대공원 관련

- 2016년 후문매점 입찰의 낙찰가액이 낮은 이유는?
- 어린이대공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필요. 안전체험센터, 수영장, 동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검토 당부
- 어린이대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실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 모색해주길 당부

26. 어린이대공원 관련

- 어린이대공원 현재 수익성은?
- 어린이대공원 장단점은?
- 어린이대공원 업무보고서에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이 없어 현실 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움

27. 임직원 업무추진비 관련

- 공단 규모에 비해 임원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예산이 부족함, 市로의 적극적 요청 및 개선의 노력 당부
- 감사 업무추진비 연간 615만원, 회의비 316만원 책정 931만원인데 조 직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28. 콜택시 구매 업체가 2~3개 였는데, '22년 1개 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29. 차량선정위원회의 배점표가 매년 상이하며, 안정성 등의 중요성이 높은 항목의 배점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다수 있음. 독과점 우려, 배점표의 전면 재검토 요청
30. 자전거 위탁금액 대비 낮은 따릉이 가동률 지적, 예산 낭비 우려됨
 - 가동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본적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함
31. 위탁 및 수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건 입찰 방식 및 긴급 공고가 나간 이유는? 긴급 공고에 대한 확인 필요함
32. 위탁 및 수의계약 관련 계약방식 및 금액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본부별 계약방식 상이함 지적 및 도로시설처 공사 사업 관련 입찰가와 낙찰가가 동일한 것이 석연치 않으므로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 요청
33. 경기장 안전 관리 소홀 지적(홈페이지 내 출입구 미포기)
34. 무허가 용도 변경 발생 건 지적
 - 市 승인없이 용도변경 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수조치 된 것은 법적문제가 발생된 것. 환수조치로 인한 예산 낭비에 경각심 필요
35.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 검토 필요
36. 콜택시 업체선정 독점 문제 제기
 - 작년 안분 구매한 것에 비해 올해 1개 업체 선정한 것 문제 제기, 정량평가 수치가 비슷한데, 임의성 강한 정성평가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듭
 - 차량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임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37. 재무제표상 불용액(미지급금)과 미수금이 함께 급증하는 문제 지적,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지 확인 필요함
38. 지하차도 배수설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 의문이 듭, 근본적으로 하수관이 문제인데 작년 예산 감축이 실시된 것 지적, 하수관 정비 실시 요청

□ **건의사항** ----- **총 66건**

【도시교통실】 -건의 33건

1. 금천구 독산초, 두산초 부근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음. 안전펜스 설치 검토
2. 신안산선 석수역에 출입구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와 협조해주시기 바람
3.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구청 심의에서 대부분 부결되고, '11년 마을버스 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마을버스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4. 택시요금 인상분이 열악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람
5. 고사위기에 처한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6. 티머니는 행감 수감대상이 아닌데 서울시가 티머니에 지분이 있는데 교통위가 현황을 볼 필요가 있음.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람. 독점적 지위를 앞으로도 인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
7. 복수의 버스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의 연봉제한 등 윤리성 강화
8. 친인척간의 버스회사 임직원의 연봉책정의 제한
9.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오탈자 주의
10.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회의실 배치 제외
11. 교통위원회 위원 지역구와 관련 사업은 사전 보고 바람
12. 민자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방안 강구
13. 9호선 사장 임원선정시 교통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임명할 것
14. 마을버스 보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 검토
15. 마을버스 지선순환제도와 같은 차등요금제 검토
16. 연세로 상권을 보호를 위한 차없는 도로 해제 적극 검토
17.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예전 기준 및 지침을 고수하지 말고 유

연한 대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

18. 택시 개선 서비스 모색 필요. 임산부, 여성전용 택시 등(두바이 사례 참고)
19. 개인형이동장치(PM) 번호판 부여 검토
20. PM 단속 근거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21. 행정서류, 공문 및 보고서류 등의 구체화적 서술 요망
22. 주요 업무보고 최소 3일 전에 배부할 것
23. 행정용어, 사업명 등 외래어 지양
24. 마을버스 환승요금제로 인해 노선버스 정류장 중복 허용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음. 오히려 마을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부분만 다니니까 문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몇 개의 정류소가 겹치든 상관 없다고 본다. 중복 정류장 4개>6~7개 정도로 확대 검토 필요함
25.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관련. 연세로 앞 이용객 주로 인근 대학생인데,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제하지 말아야 함
26. 장애인콜택시 구매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
27. 마을버스 서울시 재정 지원 못받고 있는 기존회사 동일하게 지원 필요. 마을버스 증차 관련 서울시장 방침 받을 것
28. 지하철 혼잡도 등 안전 관련, 인력이 현장에서 해야하는데. 12월 말까지 본사직원이 나가지만 인력감축 등 문제 있음. 한쪽에서는 인력 필요한데 감축하겠다는 하니 모순 느낌. 진지한 고민이 필요
29. TOPIS를 정부, 소방, 경찰, 서울시 산하기관과 연계 활용하여 실시간 대응 하도록 조치 필요
30. 데이터 바탕으로 자동 무정차 시행시스템 적극 검토 부탁
31. 국내 전기버스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음. 공공영역의 진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개정 시급. 개선방안 검토하여 보고 바람
32. 버스 이용객이 준다는 건 시민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임. 노선 재정립 보완

및 버스 증차가 필요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33.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101.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에서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건의 13건

1. 동절기 공사에 따른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 신안산선 관련, 신안산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석수역 출입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교통실, 민자사업자와 협의 요청
3. 포괄임금제 적용 금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북선 4개 공구에 적용하고 있는 이유. 건설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기 바라며 향후 계획 보고해주기 바람
4. 각 사업장별 균등한 민원대응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민원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언급
5. 사업과정에서 소송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세심한 검토 요구(동북선 지장물철거소송)
6.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회의실에 두지 않길 바람(예산 낭비)
7. 지역구 시의원 관련 사업은 사전에 보고 바람
8. 위례선 트램 2회 유찰과정에서 단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강구
9. 트램 건설의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
10. 하남선 관련
 - 하남선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 2억원을 서울시에서 전액 분담한 이유 질의
 - 국비 분담분을 받지 못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우려
11. 별내선 관련, 별내선 사업이 지연 된다면 지연 상황과 지연 사유를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보고 부탁
12. 공사현장 관련, 현재 안전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도기본 공사에 대하여 유념하여 시공 바람
13. 동북선도시철도 재무제표를 보면 선순위대출(3%)보다 이자가 높은 후순위대출을 (9%) 받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며, 지하철 사업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음. 사모펀드 회사가 3곳이나 있는 후순위 대출을 먼저 받은 것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 판단됨.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해주기 바람

【서울교통공사】 -건의 19건

1. 교통세 신설 등에 대한 검토
2. 지하철 지연 반환 관련 직원교육이 필요함
3. 조직의 애사심 증진 방안
4.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직종에 따른 임금 차이의 해소방안 강구
5. 계약직 및 자회사 직원들의 마음건강센터 이용대상의 확대 추진
6. 직원 겸직 관련
 - 당초 제출된 답변자료에 “보수 및 수당지급 내역 관련 자료는 별도 없습니다”에서 2차 자료에는 “겸직허가 신청 시 보수 등은 신청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음”으로 기재해 제출
 - 이는 지방의원의 업무 수행 및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향후 제출 시 자료 ‘부분 미제출’ 유의 바람
 - 공사 직원 겸직 시 개인업체, 통신업체, 대학교 등 겸직한 경우가 5건인데 앞으로 민간과 대학에서도 공사에 겸직사실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바람
7. 지하철 승강설비 고장 관련
 - 7일 이상 고장난 승강설비는 총 153건임. 6호선 52건, 5호선과 7호선이 각각 37건, 2호선 10건 순인데 각 건별로 고장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 바람
 - 승강설비 고장을 예방하고 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8. 하남선구간 강화유리 깨짐 관련 감사 건의, 하남선구간 강화유리 깨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고 감사를 건의함
9. 공사의 정책과 방안의 일관성 유지를 주문
10. 공사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11. 수서역, 공덕역 등 역사와 미사용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통로 활용방안

12. 지하철 역사 및 객차 공기질 개선 및 관리 강화
13. 지하철 심야운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정비 철저
14. 20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미리 체크 후 교체점검 할 것.
15.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채용 건 감사실시할 것
16. 공습경보시 승객, 지역주민에게 피난처 제공 확인
17. 마을버스 환승요금제로 인해 노선버스 정류장 중복 허용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음. 오히려 마을버스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부분만 다니니까 문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통합요금제 하에서는 몇 개의 정류소가 겹치든 상관 없다고 본다. 중복 정류장 4개>6~7개 정도로 확대 검토 필요함
18.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관련. 연세로 앞 이용객 주로 인근 대학생인데,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해제하지 말아야 함
19. 교통카드시스템 및 광고 관련 특혜 의혹 서울시 감사의뢰 건의

【서울시설공단】 -건의 1건

1. 공단 발주입찰 자격과 조건에 대한 검증

□ 기타(자료요구) ----- 총 144건

【도시교통실】 -기타(자료요구) 56건

1. 스마트 쉘터를 계속 확장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지?(예산등 자료)
2. 한정면허 지원 근거 조례 자료(누가 언제 발의, 내용)
3. 도시교통실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제출
 - 이름, 강의명, 강의료 포함
 - 업무시간 내 출강한 경우, 강의료 반납에 관한 서울시 규정 및 반납상황, 반납액 포함
4.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 접수 절차, 신고 이후 처리 결과(법령 위반일 경우 몇 조 위반인지 표기), 향후 대응방안
5. 까치산역 1역사 1동선 공사현황
6.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카메라 관련 예산, 회사별로 카메라 기능/해상도, 1084대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얼마나 부과했는지/이용실적
7. 재생자전거로 인한 수익 / 자전거 한 대당 재생 수익단가 / 재생자전거 판매 수익단가
8. 준공영제 재정지원 시 노조에게 재정지원 해주는 항목 및 최근 5년간 연도별 버스노조 장학금 지원 예산 및 집행 결과, 지원 방식, 지급 대상(개인정보 마스킹)
9.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액 부족분 대출액 / 매년 부족금액 대비 이자
10.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사용권한 부여 현황(신청자, 신청내용, 승인현황, 미승인 사유, 사용 권한 판단 주체, 기준,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범위)
11. 율뽀미버스 노선 선정 시 분석한 빅데이터(최초 도입시, 올해 4월, 12월(예정) 시기별 빅데이터 분석자료 및 결과)
12. 법인/개인택시 운영현황(개인택시는 부제별), 심야시간 시간대별 운행 대수(요금 발표 전후 비교)
13. 택시회사별 하반기 신규 기사 취업/퇴직 월별 현황

14. '20.9월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 후 업체 보험가입 현황 관련 자료
15. 외부장의 출장비 지급한 18건 증빙자료 *A의원 요구
 - 출장 및 연가 미처리(조회불가 포함)한 출강자 세부 증빙자료
 - '여비' 미수령 증빙자료를 말함
16. 암사동 고덕로1길, 아리수로 자전거도로 설계 및 준공 승인 부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바람
17. 심야버스 확대시 기존 노선 혼잡도 분석 자료
18. 율뻘미버스 전체 노선, 신설노선, 노선당 이용객수, 차량 수, 배차간격
19. 연도별(월별) 버스노선 승객 증감추이 분석 자료
20. 바닥신호등 관련 자료
 - 자치구별 바닥신호등 계약업체 및 설치 연도
 - 바닥신호등 예산현황(연도별, 자치구별, 시비/국비/구비 구분, 본예산/추경/의원발의 구분)
 - 계약현황-계약방식, 낙찰업체업종, 낙찰업체특허현황
 - 유지보수현황(하자보수 끝난 건), 계약 선정방법, 계약금액)
 - 바닥신호등 고장건수, 화재 포함 안전 현황
21. 위례신사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수요조사시 질문항목, 조사대상, 결과, B/C값
22. 2011년 이후 증차된 마을버스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17억원이 든다는 버스정책과장의 산출근거
23. 서부선의 정류장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확인
24.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지원금액('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5.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외 지원금액('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6.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 매출 총계('19년 이후 현재까지 월별)

27.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계약서, 계약서 갱신 내역
28. 표준운송권가 각 목별 원가산정 산출식 및 금액
29.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별 단축버스 현황
30. 외부강의 출장비 지급한 18건 증빙자료 *B의원 요구
 - 출장 및 연가 미처리(조회불가 포함)한 출강자 세부 증빙자료
 - '여비' 미수령의 증빙자료를 말함
31.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교통공사 본부장 채용시 채점표
32. 국정감사 시 공기질 개선 지적과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3. 최근 5년간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 설치계획, 연도별 예산 편성 및 미편성 사유, 지연설치 사유
34. 최근 5년간 열차 객실내 공기개선시설 설치 예산 편성 및 미편성 사유, 계획 대비 설치현황, 향후계획, 지연설치 사유
35. 최근 5년간 승강장, 터널, 객실 내 미세먼지 측정결과 최대/최소값
36. 지하철 공기청정기 내구연한, 관리운영비, 필터 교체 현황
37. 통합관제센터 9호선 부분 같이 부담키로 했다가 서울시 재정지원하기로 변경한 경우
38. 설계변경 후 1~8호선 통합관제센터 발주방안 보고했는데 반려한 사유
39. 시내버스 사모펀드 관련 국토부 지침
40. 도시철도 건설 시 역사의 지정과 관련된 수요조사 및 산정과 관련된 자료 보고
41. 별내선 수요 예측 자료
42. 2020.1.1.부터 2022.11.1.까지 서울시장이 도시교통실에 지시/요청한 건수, 내용
43. 현재까지 공공자전거 요금 감면 현황
44.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모펀드 매각 회사 현황
45. 택시 보호격벽 연간 설치 대수 등 현황
46. 윙클미버스 전체 대수, 운행 대수

47. 최근 3년간 교통실 산하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48. 연세로 관련 서대문구)서울시 요청 자료 원본
49.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행 시 감사원 지적(수송원가 재산정 관련) 내용
50. 보행자 우선도로, 공동주차장 자치구에 공문 보내서 선정하는데 절차, 선정 기준 결과
51. 공항버스 지원 현황 및 근거
52. 공항버스 재난지원금 25억에 대한 산출내역
53. 공항버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업체에서 받은 기초자료(재무제표 등)
54. 민간 위탁 주차장 현황 제출 및 보고
55. 장애인콜택시 평가항목 변경 관련 보고
56. 메트로 9호선 대체투자비 정상 집행내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기타(자료요구) 9건

1. 동북선 관련, 동북선에 대한 재무제표, 임원 배당 월급 명세내역, 투자자들 배당내역 자료
2. 동북선 관련, 103정거장 출입구 추가설치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문서로 직접 제출 요청
3. 동북선 노원철도기지 지장물철거요청과 관련된 공문
4. 현재 진행 중인 도기본 소송에 관한 현황(비용, 소장 등의 자료 포함)
5. 피감기관의 업무분장표
6. 진접선차량기지 건설사업 공정별 향후계획 보고 바람
7. 진접선 공사는 별도의 안전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안전 대책과 매뉴얼
8. 민원 관련, 민원내역 및 처리현황
9. 동북선 관련, 동북선 사업 자금 대출 관련 선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대출을 먼저 받은 이유와 건설 관련 업체가 사모펀드 주주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

【서울교통공사】 -기타(자료요구) 44건

1. 서울교통공사 자산 총 정리(간단명료하게 한 장으로 작성, 부채, 이자, 국가 지원 등 포함)
2. 열차지연 환불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벌 내용 확인
3. 지하철 연착과 관련된 통계(건수, 지연증명서 발급건수 및 환불액)
4. 위원회 명, 위원수, 개최수, 인원 등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출
5.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21, '22년 재무재표
6. 교통공사의 자산 및 재무상태 표로 제출
7. 유실물센터에서 공사지정 사회적 기업으로 무상기증되는 유실물 현황
8. 유실물센터에서 무상기증하는 유실물 목록 및 자산가치 산정
9. 엔지니어링 내에 이분화되어 있는 급여현황(서비스직원과 타직원 간의 임금 및 수당비교)
10. 교통공사 차량의 광고수입 및 수익배분상황
11. 미세먼지저감사업 검증절차 로우데이터
12. '18~'21년 팀장급이상 초과근무수당 집행 현황
13. 비명 감지시스템 운영현황(종료 사유)
14. 2021년 검직 위반으로 적발된 황**과장의 부동산 온/오프라인 강의 실시 내역, 강의자료, 포스터 등 홍보자료 모두 수집해 제출 바람
15. 역사혼잡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2017년~2022년)
16. 자회사 승강설비 개통 후 하자기간 처리방법
17. 자회사 승강설비 고장 현황(당일 조치, 3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상 구분)
18. 공사통합효과관련 비용절감 자료 일체
19. 지하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감사 등 결과보고서
20. 퇴직자 재취업관련 자료
 - 권익위 청년컨설팅 결과보고서
 - 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고용내역 일체

- 퇴직자 접촉시스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 2012년~2022년 정년퇴직자 재취업현황
- 자회사 재취업관련 내부규정

21. 무궁화호 탈선 진상조사, 조사보고서 등 제출
22.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관련 반환건수 및 금액
23. 탈선사고 보고문서 및 조치사항
24. 2호선 신조차량 관련 종합적 효과분석자료 일체
25. 사내근로복지기금 3년간 예산, 결산서, 회계검사 보고서
26. 공사채 유찰 현황(관련 공문, 유찰 관련 공문)
27. 주거래은행 및 법인카드 사업자 선정과정 문서 일체
28. 공기청정기 설치현황(보성전자, LG 등 제조사·업체 구분)
29. 양방향집진기 설치현황(역사별 설치금액, 설치예정 포함)
30. 본선 환기실 설치내역(설치예정 포함)
31. 각 역별 필터 교체 상세 현황
32. 공문 및 붙임문서(인사처-7358, 인사처-7443)
33.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임직원 임금 현황
34. 통합관제구축 관련 해외 출장 경비 등 지출내역
35.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 인력변동현황 및 업무 분장, 강의 현황, 인력적정성 여부
36. 통합관제구축 관련 해외 출장 경비 등 지출 내역
37. 2017년~2022년도 각 부서별 감사 접수일자, 감사명, 진행결과 일체(접수 안하고 감사해서 자체 처리한 것까지 모두 포함)
38. 도봉차량기지 주취자 난동 사건 관련자 징계 및 재심청구 현황
39. 노조 간부 징계현황
40. 지하철 공습경보 대피소 지정 역사 현황
41. 군자차량기지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신축개요, 역대 사장, 기술본부장, 처장, 팀장 결재 공문서, 회의록, 도면 포함 자료 일체

42. 공기질 개선 장치 부착 필터 재고(필터종류, 월필터소요량, 교환/세척용 구분, 교환주기 등)
43. 설계가 변경된 사업내용과 금액변경 관련 이유
44. 경영본부 업무용 차량 보험 관련 공고문 일체

【서울시설공단】 -기타(자료요구) 35건

1. 최근 5년간 이사장 특명 사항 자료
2. 최근 성비위 관련 감사 자료(경과 및 결과)
3. 폭우시 자동차전용도로 통제 매뉴얼 및 시스템상 발생한 문제점 관련 자료
4. 공단 정관
5. 최근 3년간 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명단, 급여, 수당
6. 고척스카이돔 '책보고' 통해 200억 원의 예산을 40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
7. 최근 2년 시간대별 장애인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8. 따릉이 집중관리대여소 운영 관련 빅데이터 분석자료
9. 따릉이 이용서버 및 자료 저장 관련
10. 외부강의·점직 시 수입 상한액 제한 및 관련 기준 지침 수립 후 보고 바람
11. 외부강의 출장비 미수령자와 수령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중 수령자의 증빙자료 제출할 것
12. 부당해고·부당징계 건 노동위원회 2건에 대한 판결문, 심문회의 결과보고 및 조치결과
13. 따릉이 QR 단말기 부품 및 배터리교체 입찰 등 조달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보고
14.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운영시간
15. 어린이대공원 화장실 유지보수 내역
16. 어린이대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 비율
17. 장애인콜택시 모바일웹 대체텍스트 정보 미제공 관련 향후 개선계획 추후 보고
18. 전 상임감사에게 지급된 성과급 현황(임기중)
19. '해임' '파면'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성과급 지급 현황(최근 5년간)
20. 징계대상자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

21. 최근 상임이사 임원모집 공고, 서류합격자 명단, 서류합격자 명단 중 범죄 경력 및 징계 현황
22. 직장 내 스토킹 방지 관련 방침 수립 후 제출
23. 여성가족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공단 매뉴얼 및 지침
24. 최근 3년 간 외부감사 신분상/재정상 조치 현황
25. 행복큐 수의계약 현황(연도별, 계약금액, 품목, 수량 등)
26. 신규 채용시 예비 합격자 수, 예비합격자 유효 기간 채용별/직종별 동일 여부
27. 최근 5년간 가족수당, 경조사비 부당 지급 현황
28. 지갑 없는 주차장 인력운영 현황(전/후 비교, 각 주차장별 구분)
29. 대공원 순찰 방역 로봇 관련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30. 대공원 후문매점 지속적 유찰 관련 현황 추후 보고
31. 고척돔 청소 로봇 관련 업체명, 금액, 보증기간, 문제점
32. 지하도상가 광고 업체 현황(업체명, 계약방식, 금액, 계약기간, 광고 위치)
33. 경영본부 업무용 차량 보험 관련 공고문 일체
34. 정보통합유지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자료 일체(공고문 등)
35. 매년 콜택시 차량선정 기준 변경 사유(심의위원 명단, 위촉 과정, 심의일자, 심의위원 선정 평가방법)